다산포럼

우리를 못마땅하게 하는 것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일들도 많다. 하지만 2019년을 돌이켜 보면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 또한 많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백미(白眉)는 전광훈 목사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 목사는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 내었다.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그가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절대자를 자처하는 듯하다. 이건 신성모독(神聖冒瀆)이 아닌가?

또 이런 말도 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는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란 것을 설치하고 '순국 결사대'까지 모집하며 "청와대에 진입하여 문재인을 끌어내자"고 역설했다. 현행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박근혜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터인데도 그는 이를 '주님의 명령'이라 둘러대고 있다. 그의 이런 행태가 우리를 몹시 못마땅하게 한다. 그리고 이른바 '광야교회'에서 그를 따르며 철야 기도를 하는 추종자들의 집단광기(集團狂氣)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한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작했던 철도노조의 '준법투쟁'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한다. 철도노조가 벌인 준법투쟁 행위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준법투쟁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를 못마땅하게 한다. 준법투쟁의 사전적 정의는 '업무나 시설 관리 법규 또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 운전, 점검 투쟁, 정시 퇴근,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 거부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근로자들이 각종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어째서 '투쟁'의 수단이 되는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면 법규 자체를 고쳐야 옳지 않은가? 철도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불법적인 관행을 용인했거나 권장했다는 것이 되니 어찌 웃기는 일이 아닌가?

지난해 일본의 새 천황(天皇) 즉위식이 있었다. 21세기에 세습적 천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한다. 그나마 일본의 천황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존재이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떠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은 21세기의 난센스이다. 북한은 겉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봉건적 왕조체제(王朝體制)이다. 이성계의 자손들이 대대로 조선왕조의 왕 노릇을 했듯 이른바 '백두혈통'의 김일성 자손들이 세습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된다. 이들이 성골(聖骨)인 셈이다. 못마땅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김씨조선'(金氏朝鮮)으로 부를 것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옛날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강대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자세는 높이 살 만하지만 통일된 한 민족이 평화롭게 살 그날을 위해서 북한의 체제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대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하고, 담뱃갑에 부착된 흉측한 그림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한다. 사소하지만 우리를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 또 있으니 다름 아닌 '삼한사미'란 용어이다. 이 말은 '삼한사온'을 살짝 바꾼 것이다. 삼한사온은 '사흘은 춥고(寒) 나흘은 따뜻하다(溫)'는 뜻인데 삼한사미는 '사흘은 춥고 나흘은 가늘다(微)'로 풀이된다. 물론 삼한사미가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쓰려면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삼한사진'(三寒四塵)을 제안한다. 이렇게 쓰면 표현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춘 톡·톡

'대2병' 극복기

백가영
동신대 신재생에너지전공 2학년

'대2병'을 아시나요? 대학교 2학년부터 겪는다고 하여 '대2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중2병' 다음으로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 요즘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다.

첫 번째 증상은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진로 설정에 대한 무한 굴레에 빠지는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 이렇게 큰 세 가지 부류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 세 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하고, 어느 하나를 놓치기도 싫고, 또 다시 의문이 들어 목표를 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증상의 경우 주위 사람과 나의 스펙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대학생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취업과 관련된 것은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2학년이 된 이후 대학생 라이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살벌한 취업 전쟁을 마주하게 됐다.

가끔씩 학과에서 취업을 한 선배를 초청해 특강을 한다. 대부분 특강에 초청된 선배들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에 성공했다. 그 선배들의 특강을 들을 때마다 선배의 스펙과 현재 나의 스펙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지?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선배들의 취업 성공기와 조언은 이미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부족한 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면 우울함과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른바 '번 아웃'에 빠지는 것이다.

'번 아웃'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무기력증이나 불안감, 의욕 상실 등에 빠지는 현상이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귀찮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의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한때 불면증이 생겼고, 대인 관계마저 악화될 뻔했다.

하루는 이런 나를 보다 못했는지 아는 언니가 밥을 사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그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라면, 나는 단호하게 좋지 않다고 말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내면의 네 소리를 들어 봐"라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날은 기숙사에서 늦은 밤까지 혼자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답일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응원이 되는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찾았다.

우린 같은 세상(世上)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 수만큼 다른 세계(世界)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있어서 서로 잘나고 못나고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세계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했을 때 생겼던 스트레스도 덜해졌다.

솔직히 아직까지 나를 평가하며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든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채찍을 다시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신에 '난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라고 내면의 나에게 말한다. 마치 주문을 걸 듯,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건넨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 괜찮아요. 늦어도, 조금 빨라도 굽이굽이 돌아가거나 생각지도 못한 길이 튀어나와도 틀린 길은 없어요. 자신을 믿고 응원하면서 초조해하지 말아요'라고.

그리고 취업이 전부인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그저 스펙만으로 그들의 대학 생활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하고 싶다. '취업이 전부인 현실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책임으로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끔은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라고.

기 고

김정은식 신년사는 우등불 피웠을 때 발표되었다

이성춘
송원대 교수·북한학 박사

북한의 제7기 제5차 로동당 전원 회의와 202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연말 나흘간의 회의 일정이나 전원 회의 결과로 기존의 육성 신년사를 대체한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본다. 평소보다 긴 전원 회의 기간이나 신년사 미발표는 예전 김일성 주석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다. 과거 전원 회의 일정은 정세 및 사안별로 이틀에서 닷새까지 실시되었으며, 신년사도 1957년과 1987년에는 아예 발표도 하지 않았다. 또한 1966~70년 신년사는 로동신문 사설로 대체하는 등 많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초 백두산에 올라 우등불(화톳불의 북한말)을 밝혔다. 북한에서 우등불의 의미는 각별하다. 김일성 저작집에서 보면 "항일유격대에서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굶어도 같이 굶고 잠을 자도 우등불 곁에서 같이 잤으며…" "숙영지에 가면 제일 먼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다 우등불을 피웠고…"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등불을 밝혔다는 것은 항일 유격대 정신을 새롭게 구현하자는 것으로 이신작칙(以身作則)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2월 초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미 김정은식 신년사를 발표한 셈이다. 과거의 우등불이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면 현재의 우등불은 대미 항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내년 즉 2021년은 김정은에게 10년 집권 정주년의 해로서 정권의 정통성을 새롭게 부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당연히 2020년에는 새로운 정세 조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상을 내보이면서 현지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을 바라볼 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아야 한다. 이번 로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핵 억제력의 동원 태세를 항시 유지하면서 정면 돌파 하자는 것이다. '정면 돌파'는 김정은식 새로운 길이며 투쟁 방향이다. 북한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 정면 돌파는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 나가는 혁명적인 투쟁 전략이며 전진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분간 정면 돌파라는 전원회의 과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궐기 대회가 평양에서부터 시작하여 북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지침이 하달되어 모든 영역에서 정면돌파는 진행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혁명 구호가 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 북미 관계에만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입지 축소가 염려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의 촉진자로서 부분별 정면 돌파에 대한 우리 당국의 남북 협상 전략과 지원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단기전략 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김정은의 새로운 길에는 북미 관계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복잡한 속내가 담겨져 있다. 금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가 있으며, 북한은 로동당 창건 75주년과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넷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 75돐을 성대히 기념할 데 대하여'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한 것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당 전원 회의를 세밑까지 진행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현실 인식과 체제 생존 차원의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북미 관계는 긴장을 유지하면서 시간 벌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다 손해 볼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벌기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과정 중 북한의 새로운 전략 무기가 나타나게 되면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은 또다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때이다. 경자년에는 남북 관계가 한걸음 진전되길 기원한다.

社 說

'뒤늦은 단죄' 세월호 유족 응어리 풀리려나

검찰이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11일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뒤 56일 만이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어제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부를 포함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여섯 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대규모 인명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도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해경 관계자 15명과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인 단원고 2학년 김 모 군의 아버지가 지난 연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에게 마지막 영상을 남긴 김 씨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참사 이후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비통한 일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은 참사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구조 방기로 사실상의 살인이 벌어졌는데도 구체적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한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의미가 있다. 역사의 죄인들에 대한 단죄가 조속히 이루어져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한다.

광주전남연구원장 선임 시도민이 주목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하면서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로 통합 5년을 맞이하는 연구원이 광주·전남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성수 현 원장의 후임인 제4대 원장에 대한 재공모를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했다. 앞선 1차 공모에서 서류 접수자가 단 한 명에 그치자 재공모에 들어간 것이다. 신임 원장 공모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역 내 최고의 연구 집단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발전의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기능인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기획·정책·지원·수탁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정책 입안이나 국비 사업 발굴, 정부 및 정당 공약 반영 등에서 기여도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제가 일부 연구위원들에게 편중되면서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사 안일이 팽배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후임 원장은 광주·전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조직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을 아우르면서 광주군 공항 이전 등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한 상생 해법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하다. 신임 원장은 무엇보다 연구 역량을 높여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의 싱크 탱크로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닌자 드론

미국이 이른바 '닌자 드론'으로 알려진 리퍼(Reaper·MQ-9)를 이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부대인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제거한 것과 관련, 첨단 무기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리퍼'는 이른바 '닌자 폭탄'(Ninja bomb)이 탑재된 요인 저격용 드론이다. 미 본토에서 조종해 적국의 타깃을 핀셋처럼 집어내 공격하는 최첨단 무기로 사실상 전쟁의 공식을 바꾸고 있다.

드론에 탑재된 감시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 등이 수집한 정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지상 작전통제부에 전달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미 본토의 드론 조종사들이 전자장비를 원격 조정, 표적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은 이제 미국이 중동 테러 조직을 상대하는 최일선 장비로 자리 잡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2009~2013년)에도 미군은 드론을 이용, 중동 테러 조직 알 카에다 조직원 330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사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드론은 기존의 감시·정찰 용도에서 벗어나 각종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을 장착한 최첨단 공격형 무기로 변모하고 있다.

주한미군에도 '그레이 이글'(MQ-1C)이란 공격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레이 이글은 리퍼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1.6t)은 비슷하다. 한반도 전역을 고화질로 감시할 수 있어 강력한 최첨단 무기로 평가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새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출렁일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드론과 같은 최첨단 전략 장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한 안보'는 한반도 평화를 이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tu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